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8. 12. 28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인터폴 사무총장, 잠재 테러리스트 「ISIS 2.0」 경계 촉구
 - 12.19 「위르겐 스톡」 인터폴 사무총장은 “ISIS 동조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유럽·아시아 등 각국에 수감 중인 잠재적 ISIS 추종세력이 석방되면 다시 ISIS 일원이 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「ISIS 2.0」이 될 것이 우려된다”며, 이에 대비한 국제공조 강화 촉구
- 독일, 철도 전력선 훼손사건의 ISIS 연관성 수사
 - 독일 경찰은 12.23 베를린 근교에서 철도 전력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, 사건 현장 부근에서 ISIS 깃발과 아랍어로 된 글씨가 발견됨에 따라 ISIS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
 - * '18.10월 뮌헨과 뉘른베르크 사이에서 발생한 훼손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
- 美,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 가능성 경고
 - 12.24 美 국무부는 성탄절부터 새해 초까지 기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스람블라스* 지역에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, 스페인 당국은 대중교통에 대한 보안강화 등 테러예방 강화 중
 - * '17.8월 ISIS의 차량돌진테러(14명 사망·80여명 부상)가 발생한 관광 명소

중 동

- 리비아, ISIS 추정 외무부 자폭공격
 - 12.25 리비아 당국은 ISIS로 추정되는 무장괴한 3명이 트리폴리의 외무부 청사를 공격해 3명을 살해한 후 자폭했다고 발표

○ 시리아민주군, ISIS 포로 3천여명 석방 검토

- 12.20 NYT는 美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철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리아민주군(SDF)이 ISIS와의 전투를 우려해 ISIS 포로와 그 가족 3천여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테평양

○ 아프간, 정부건물에 자폭 · 총격 테러로 43명 사망

- 12.24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정부건물을 겨냥한 차량 자폭테러와 총격이 발생, 테러범을 포함해 최소 4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
 - * 금년 카불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로 기록

○ 日,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‘드론테러 대책법’ 마련

-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·패럴림픽 기간 중 경기장 상공과 주요공항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고, 제한구역에서 비행한 드론을 강제압수·폐기할 수 있는 ‘드론테러 대책법’을 마련하여 내년 1월에 소집되는 국회에 제출 예정

○ 인도, 연쇄테러 모의혐의 10명 검거

- 12.26 인도 국가조사국(NIA)은 뉴델리, 우타르프라데시 등에서 정치 지도자 및 국가중요시설을 목표로 테러공격을 모의한 용의자 10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
 - * 휴대폰 100대, SIM카드 135개, 원격폭파장치, 로켓발사대, 폭발물 등 압수

○ ISIS 대변인, 아프간서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

- 12.27 중국 언론은 “12.26 외국군의 의해 ISIS의 은신처인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 지방을 무인기로 공습했으며, 극단주의 단체 ISIS 대변인 「술탄 아지즈 아잠」* 등 4명이 사망했다”고 보도
 - * 대변인 외에도 고위 관료 대상 테러할 목적으로 병사 모집책 임무를 병행

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 정부청사 자폭테러

- '02.12.27. 14:30경 러시아 연방인 체첸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니 (Grozny)에서 정부청사를 목표로 한 차량 자살폭탄테러 발생으로 72명 사망·210명 부상
 - * 同 테러에 다이너마이트 약 1톤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
- 테러범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정부발행 공식 출입증을 소지, 군용 번호판을 단 트럭과 지프차량을 몰고 검문소 세 곳을 무사히 통과
 - 청사와 근접한 4번째 검문소에서 엄격한 검문을 받게 되자 충기를 난사한 후 정부청사로 차량을 돌진하여 자폭하였으며, 4층 규모의 청사 정면에 직경 5~7m의 구멍이 생기고 건물 일부가 붕괴
- 테러 직후 체첸 반군 야전지휘관인 「샤밀 바사예프」는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 체첸공화국의 대테러부대 대변인 또한 同 테러가 체첸 반군에 의한 테러라고 발표
 - * 체첸 반군은 '91년 소련 붕괴 직후 독립을 선언하고 對러시아 투쟁을 지속해 왔으며, 同 테러 이후에도 러시아·체첸에서 지속적으로 무장투쟁(테러) 감행

< 쉥겐 정보시스템(SIS, Schengen Information System) >

- (개요) 유럽지역 31개국이 범죄·테러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을 위해 각 개별국가의 범죄·테러 용의자, 위조·분실 신분증 정보, 생체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
- (가입국) EU 회원국 중 키프러스를 제외한 27개국과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 등 EU 미가입 4개국을 합한 총 31개국
 - ※ 2001.3.25. 15개국이 국경통제를 완화하면서 안보 목적으로 설립
- (공유정보) 범죄·테러 용의자, 실종자, 위험인물 및 감시대상자, 분실·도난 무기류, 도난 자동차, 위조·분실 신분증, 위험인물의 지문 등 생체정보 등
- (현황) SIS는 2011.11월 공유정보 확대 등 1차 시스템 개선 후 2013.4월 입력·수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2차 개선작업이 진행되었으며, '17년말 기준 약 8,000만 건 이상의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상호 공유 중